



즉시 배포용: 2021년 8월 24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뉴욕주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더 많은 신청자를 모집하기 위해 변경 발표

취약 지역 신청 격려를 위하여 마케팅과 지원 활동에 뉴욕주가 추가 1 백만 달러를 투자하도록 명령. 신청서를 제출한 모든 세입자는 신청서 검토 중 퇴거에서 보호

집주인 지원에 특화된 작업 흐름과 계약 지원 재배치의 신속 검토 및 지불 증가를 위한 미결 신청서 해결 지시

투명성 증진을 위하여 임대료 지원금 배분에 대한 새로운 카운티별 데이터가 금주 후반에 공시될 예정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비상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에서 신청자 모집을 확대하고 지불을 가속하기 위하여 일련의 변경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지사의 지시 아래, 뉴욕주는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과 이용 가능한 자원, 신청서 제출 시 퇴거를 방지하는 세입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 실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케팅과 지원 활동에 추가 1 백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OTDA)은 뉴욕주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신청서가 접수된 지역을 겨냥하기 위하여 신청 데이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또한 Hochul 주지사는 미결 지원서 처리를 완료하여 지불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집주인들과 협력업무를 할 계약직 직원 100 명을 재배치 하였을 뿐 아니라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작업 흐름의 신속한 검토를 명령하였습니다. 계약직 직원들은 직접 지원을 수행하고, 집주인들과 일대일로 업무를 처리하여 누락된 정보를 명확히 확인하여 기입하고, 미결 사항을 해결하여 더 많은 임대료 지원 기금이 분배될 수 있도록 합니다. 추가적으로,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카운티 별로 임대료 지원금 배분의 새로운 상세 내역이 금주 후반에 OTDA 웹사이트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현재 웹사이트에서는 신청서가 제출되는 지역과 기본 인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수많은 뉴욕 주민이 재정적 혼란과 불안에 휩싸였으며, 임대료를 내기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케팅과 지원 활동을 확대하고 더 효과적인 대상에 집중함으로써, 도움이 가장 필요한 지역사회에서 인식을 증진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도록 하며, 그들이 퇴거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처리 과정 검토와 재조정이 진행 중이며, 특히 집주인들의 지원서 제출을 돕는 데 더 많은 직원을 배치할 것입니다. 이로써 미결 지원서에 대한 승인을 완료하고 기금이 훨씬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세입자 46,000 명 이상이 신청서를 잠정 승인 받아서 이에 대한 임대료 지원 기금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단, 일부 사례에서, 세입자와 집주인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의 사소한 불일치, 또는 집주인 계정에 대한 조정 필요성으로 인해 지원금 배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배치된 계약직 직원들은 이미 확보된 직접 지원금이 배분되도록 하고자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비상 임대료 지원에 최대 27억 달러의 기금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뉴욕 서민들을 위해 확보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민 신분과 관계 없이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연체 임대료 최대 12개월분, 향후 예상 임대료 3개월 보조, 연체 전기/가스 요금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지난 6월 1일 신청서를 접수하기 시작한 이후, OTDA는 집주인에게 지급된 직접 지원금 2억 달러를 포함하여 연방 기금에서 6억 8천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였거나 의무 배정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별 실행 상황을 추적하는 전국 저소득 주거 연맹(National Low Income Housing Coalition) 보고에 의하면, 뉴욕은 이제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기금을 승인하고 가구에 지원한 주입니다.

뉴욕의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세입자 보호 조치 몇 가지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뉴욕주 퇴거 유예 조치 종료일인 8월 31일이 다가옴에 따라 수만 명의 뉴욕 주민에게 요긴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 신청자들은 신청서가 처리될 동안 자동으로 퇴거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임대인은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을 면제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외적 상황을 빼고 1년 동안 세입자의 월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퇴거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연방법에 따라, 세입자와 집주인 양방 모두가 지원금 지급 전에 신청서를 작성 완료해야 합니다. 단, 뉴욕주는 세입자 측의 신청서를 승인하여, 세입자가 이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동안 퇴거로부터 완전히 보호되도록 합니다. 이런 경우, 뉴욕주는 집주인을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불하기 위해 노력하는 6개월 동안 의무 배정된 기금을 보관합니다. 이 상황의 세입자는 최대 1년 간 퇴거를 피하기 위하여 경감 사유로 사용할 수 있는 명확한 통보를 받게 됩니다.

OTDA 커미셔너인 Mike He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곤경에 처한 뉴욕 주민을 돕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Hochul 주지사의 지도력과 지원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청서 처리 과정을 용이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하는 동안, 대상이 되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모든 신청자들에게 제공되는 강력한 퇴거 방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OTDA 는 이달 초, 이 포털 사이트에 신청서 "저장 후 재개" 기능을 추가하여, 신청자들이 필요할 때 정지하였다가 다시 절차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기관은 향상된 진행 상황 기능을 추가하여, 신청자들이 자신의 신청 상황에 대해 더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당국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줄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